

칼럼

장기채 주필



설에 새겨보는 덕담 이야기

새해가 시작되면 모두가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는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해를 채워갈 멋진 목표들을 하나씩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꾸준히 이어가는 실행력이 더 중요할 것이다.

머칠이 지나면 민족의 대명절 설날이 다가온다. 예나 지금이나 설 명절은 우리 모두를 설레게 만든다. 새해 아침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새 옷으로 갈아입고 차례를 지낸 다음에는 설음식을 이웃과 나눠 먹는 것이 우리네 세시풍습이다. 그런데도 어쩌면 우리들 주변 모두가 씁쓸하고 암울한 느낌뿐일까. 하지만 우리나라 전래의 미풍양속에는 새해가 되면 서로 상대방이 잘 되기를 비는 덕담(德談)을 주고받는다. 참으로 아름다운 미풍양속이다. 그리고 흐릿한 풍속이 아닐 수 없다.

'새해는 행복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소원성취 하십시오' '새해는 꼭 취직 하십시오' 등의 덕담을 주고받는다.

물론 조금은 형식적이고 의례적이라는 느낌도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덕담을 주고받을 때의 기분은 나쁘지가 않다. 서로의 덕담은 우리의 마음을 살찌게 하고도 남

는다.

덕담은 상대방이 잘되기를 바라는 소망의 표시이며 그것은 상대는 물론 자기 자신에게도 지(知)와 덕(德)을 쌓는 지름길이 될 것이며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가능성을 더해 줄 것이다. 덕담은 그 속성상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윤활유 같은 것이기도 하다. 덕담은 덕담을 받게 마련이며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 덕담처럼 되도록 노력하고 돕는다면 얼마나 좋은 이웃이 되고 사회가 될 것인가. 해마다 새해가 되면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

진실에서 우리나라는 덕담의 자서로 새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해지는 것은 사람들의 생활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 일 것이다.

새해의 기분이 가시기 시작하면서 아니, 새해 덕담을 하면서도 우리는 덕담보다는 험담에 더 많은 관심이 가는 것이 아닌가. 한 번쯤 반성해 보아야 한다.

남을 칭찬하기 보다는 흉보기를 즐겨하는 것은 아닌가. 장점을 찾기도는 단점을 찾아내기에 혈안이 돼있지 않는가. 수고는 남

이하고 영광은 자신 이 차지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가. 올해는 험담은 버리고 덕담만 해보자. 어쨌든 예나 지금이나 설 명절은 우리 모두를 설레게 만든다.

설날 아침에 맛보는 떡국은 지금 쇠고기나 닭고기에도 끊이지 않 옛날에는 꿩고기로 많이 하였 다. 설날에 흰 떡국을 끓여 먹는 것은 고대의 태양숭배 신앙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은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동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현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설날에 마시는 술은 데우지 않고 찬 술을 마신다.

경도잡지(京都雜記)에 보면 '술을 데우지 않는 것은 봄을 맞이하는 뜻이 들어 있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우리들이 연상하는 설날의 이미지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매년 여유롭고 정겨운 것이다. 풍성하게 준비한 음식 앞에 차려놓고 웃어른들의 훈훈한 덕담이 오가는 가운데 아이들의 재롱으로 모든 가족이 행복해 지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 설날이 언제부터인가 조

금씩 변화하기 시작하니 결국은 설날이 바쁘고 귀찮기까지 한 것으로 변해버렸다. 많은 사람들이 설전에 고향을 찾는다. 숲 기쁜 일상 속에서 어렵게 귀성길에 올라 고향에 도착하자마자 쫓기듯이 후딱 차례를 지낸 후 다시 서둘러 귀경길에 오르는 게 요즘의 세태 아닌 세태가 되어버렸다. 수많은 현대의 가정들이 이렇게 피곤하게 설 명절을 마무리하기 일쑤다.

연제나 즐겁고 풍요로운 즐만 알았던 우리의 설날 모습이 이렇게 각박하게 변한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지나치게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사이에 서민들은 죽을 맛이다. 이는 차츰가는 물가, 밀리는 임금 체불, 늘어만 가는 세금,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교육 그리고 고령화시대에 발맞추지 못하는 노인정책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이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을 더욱 힘들고 고단하게 만들고 있다.

이젠 명절풍속도 바뀌어야 한다. 여유를 찾아야 한다. 다가오는 올해의 설을 시작으로 자녀들과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가족에 대한 사랑도 내일로 미루지 말자. 오늘 당장 진정한 마음으로 가족에게 정성을 베푸는 게 참사랑 아니겠는가.

이럴 때 국민에게 감동 주는 청와대발 덕담이 온 나라에 가득 차는 그런 설날이 되었으면 한다.

社 說

범죄피해 불안감 해소해야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 2명 중 1명(50.3%)은 우리사회가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여성들의 불안은 지난 6년간 11.5%p나 증가해 남성과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안전실태 등에 관한 2018년 성(性)인지통계를 발간·발표했다.

이 통계에 따르면 불안요인 중 범죄발생에 관한 두려움이 가장 컸고, 신종질병, 건축물·시설물, 교통사고, 자연재해 순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년간 여성의 범죄피해 불안감 상승폭은 7.0%p로 남성(1.3%p)보다 6배나 높았다. 여성의 범죄피해 불안감은 매년 증가해 2016년 71.9%로 매우 높으며, 여성과 남성의 불안감 격차는 20대(30.2%p)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 2017년 서울자치협범범 3082건 중 성범죄가 1811건으로 절반 이상(58.8%)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성범죄 중

60.4%(1094건)는 추행, 39.6%는 불법촬영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호신벨로는 유동인구가 많은 2호선, 9호선, 1호선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선 가해자 80.3%는 상급자(사장, 상사), 동료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살인사건 가해자 중 34.5%가 애인·친족으로 일면식도 없는 타인(22.3%)보다 12.2%p 높았다.

서울여성의 안전교육 경험율은 (46.5%)은 남성보다 13.8%p 낮으며, 특히 30대 이후 연령대에서 성별격차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발간된 2018 성(性)인지 통계는 4개 부문(범죄안전, 재난안전, 교통안전, 안전환경), 14개 영역, 359개 통계지표로 구성해 여성과 남성의 안전현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범죄피해 불안감을 떨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관계당국은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虛 堂 習 聽

虛 堂 習 聽

▷ 뜻: 빈방에서 소리를 내면 울려서 다 들림. 즉 착한 말을 하면 천(千) 리(里) 밖에 서도 응(應)함.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 5층) 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湖南新聞

대 표 전 화 (062) 224-5800 편집국 (062) 222-5547 팩 스 (062) 222-5546 광고국 (062) 222-5544

명 예 회 장 이 신 원 회 장 정 계 조 발 행 · 편 집 인 검 부 사 장 최 산 순 총 괄 이 사 이 흥 계 편 집 국 장 강 서 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경사로 주차사고 예방법

비탈길, 경사로에 세워 둔 차가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지나가던 행인을 덮친 사고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왜 이런 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마 운전자의 부주의뿐만 아니라 자동차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이드 브레이크에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해서 발생한 사고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럼 비탈길 사고를 막기 위해서 경사로 주차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사로에 주차할 때 반드시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주세요.

요. 주차를 할 때에는 자동차 기어를 P상태로 놓는데요. 각도가 높은 경사로에서는 차량의 무게를 견디기엔 매우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사로에 주차를 해놓을 경우에는 사이드브레이크를 최대한 당겨서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고인목이나 벽돌을 경사로 위치에 따라 다르게 놓아주세요. 경사진 곳에 차량을 주차할 때는 P상태, 사이드 브레이크는 물론, 고인목이나 벽돌을 놓아 차량의 밀림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내리막일 경우 고인목의 위치는

앞바퀴 앞쪽에 놓고 오르막의 경우 뒷바퀴 뒤쪽으로 놓으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여 내리막에서는 앞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고, 오르막에서는 뒤로 굴러가는 것을 막는 위치에 놓아주시면 됩니다.

셋째, 경사로에 주차를 할 때 바퀴 방향을 다르게 틀어주세요. 우선 경사의 방향에 따라 차량 방향을 반대로 놓아두는 것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차량과 바퀴 방향을 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리막일 경우 핸들을 보도블록 방향으로 돌리고, 오르막일 경우 핸들을 보도블록 반대 방향으로 돌려 전·후방 바퀴가 보도블록과 충돌해 경사로로

굴러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이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주거 지역이 경사진 곳에 있는 경우가 유독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경사로 주차에 의한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 중 경사로 주차시 미끄럼 방지에 대한 조치가 의무화 되었으며, 이를 위반하게 되면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 경사진 곳에 주차할 경우 더욱 더 안전에 유의하여 나쁜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세요.

유동석 / 보성119안전센터

문화여성
문화가 있는 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